

+ 함께 볼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에베소서 3:20-21, 새번역)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 ever and ever! Amen.(Ephesians 3:20-21, NIV)

+ 가깝고도 먼 사이. '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 양상과 정책과제'(2015)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가 최근 1년간 가족 갈등을 경험했다고 했다. 갈등 유형으로 가족 내 세대 갈등이 가장 많았다.(37.5%) 다음이 형제자매 갈등(20.6%), 부부 갈등(19.4%)이었다. 세대 갈등 중에는 부모와 자녀 갈등이 28.3%로 가장 많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 및 형제자매와 의절하는 경우가 열 가족 중 하나 꼴이다.
이러한 가족 갈등은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있는데,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에게 이어받은 트라우마나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벌어진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아이나 여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 등을 주요한 요인들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성공, 생존의 방식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승하다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 바트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지점들이 보이는데 바트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와 폭력이 수반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더욱 컸다.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다운로드 www.cricum.org/1623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솔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 무비톡가이드 vol.40

"상상의 힘"

- 가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
-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조차 두렵다면 -

문화선교연구원+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

+ 어떤 영화예요?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역대 최다 플레이”,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CCM”과 같은 수식어를 갖고 있는 곡 ‘I can only imagine’의 탄생 비화를 그렸다. 전설적인 밴드 Mercy Me의 보컬 바트 밀라드가 겪은 가족 내 갈등과 학대, 폭력을 은혜 안에서 봉합하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여정이 담겨있다. 그의 자전적인 스토리가 담긴 노래 ‘I can only imagine’은 수차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등 종교음악의 경계를 넘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치유와 구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 역시 2018년 봄 개봉 당시 북미 박스오피스 3위라는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며 또 다른 신드롬을 일으켰다.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인종 청소’에 버금가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던 동유럽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책 『배제와 포용』에서 포용의 드라마를 말한다. 팔 벌리기, 기다리기, 팔 모으기, 그리고 다시 벌리기의 네 단계로 구성된 이 포용의 드라마는 타인을 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을 설명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러하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믿음의 행동은 괴롭고 힘겨운 싸움이기도 하다. 자신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던 바트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으나 상처를 치유하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를 읽매고, 그의 가능성을 제한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바트 뿐 아니라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을 포용한 후 다시 팔을 벌려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의 회심과 변화라는, 용서와 화해의 강력한 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바트의 사례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래 ‘I can only imagine’의 가사 대로,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회복과 치유를 꿈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 김지혜 책임연구원(문화선교연구원)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 인물, 대사를 골라 A4 용지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2. “나에게 가족이란 ○○○이다!” ○○○을 채우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3. 가족 중 누군가와 갈등할 때가 있다면, 대부분 무엇 때문인가요?
4.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5. 나에게도 바트처럼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상처가 나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한 마디를 적어보세요.